

(비공식 번역)

대한민국 대통령

윤석열 각하

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귀국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.

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.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북도를 비롯한 피해 지역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2023년 7월 15일

일본국 내각총리대신

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